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콜롬비아에서 2020 년 새해 첫 선교 편지 보내드립니다.

최근 콜롬비아 반군 민족해방군(ELN)의 무장파업으로 정세가 편치 않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해주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와 저희 농아 신학생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메데린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추가적인 신학교 홍보로 현재 평균 20 명 이상의 농아학생들이 출석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야간 수업은 월 ~ 금 오후 6 시부터 9 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주일엔 오전 10 시부터 12 시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 월부터는 메데린에서 멀리 있거나 형편이 되지 않는 콜롬비아 전국에 있는 농아인들을 위하여 ZOOM(화상회의 앱)을 통해 월부터 금까지 강의를 실시간으로 함께 보여주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농아인들이 ZOOM 을 통해 수업을 함께 하고 싶다고 제안하여 시작하였는데 주일 예배에도 ZOOM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많은 콜롬비아 농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아인들이 참여하여 화상을 통해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효과적으로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많은 농아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 주 토요일 오후에는 농아 신학생 3 명을 함께 데리고 메데린에서 1 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 가서 5-10 명의 농아인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며 후원해 주셔서 농아신학교 운영에 어려움 없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월에 진행하려고 하였던 비자 신청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 월 중순에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이 무장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여 시민들에게 거리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여 한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 월 29 일과 2 월 21 일에 두 번이나 보고타에 다녀왔으나 갈 때마다 비자 담당자의 안내 절차나 안내 서류가 달라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수화 통역사와의 소통 문제도 있어 비자 신청 진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현지 비자 대행 사무소를 소개 받아 비자 신청 대행을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준비 서류 등 절차를 잘 진행하여 주어서 기존 농아 클럽에서 발급한 서류 외에 추가 보완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을 한 상태이며 서류 신청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인터뷰 일정이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진행 사항을 다시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보고타에 방문하였을 때 오랜만에 보고타에서 가르쳤던 농아 신학생들과 농아 성도들을 만나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0 년도의 특별한 선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아인 동성애자들을 만나 복음 전파
2. 메데린 주변 지역의 농아인들에게 복음 전파
3. 신앙 수련회 (\*5월 15일 - 17일)
4. 세미나(주제:이혼에 대해) (\*4월 11일 오전 10시)
5. 무직 농아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일자리 찾아주기  
(\*지금 몇몇 농아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생활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귀 교회와 모든 가정, 사역에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농아 신학생들이 앞으로 주님의 귀한 교역자가 되어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2. 강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학생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3. 장기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4. 사역하는 제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김정철 목사 드림.





(메데린 농아 신학교 개강 피자파티, 수업 모습)



(보고타에 잠시 방문했을 때 보고타 신학생과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만나 말씀을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